



협심증(狹心症)

협심증이란?

심장 표면에는 여러 혈관이 있는데 이중 끊임없이 운동하는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한다.

이 관상동맥의 어느 부위가 좁아져 심장이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오면 앞가슴 한복판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협심증이라 한다. 협심증은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공급량보다 많을 때 즉, 심근의 산소요구량과 공급량의 불균형이 생길 때 발병한다.

▼ 성별/나이

35세 이상의 남성과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서 많이 발생

▼ 원인

관동맥에서 피를 너무 적게 공급하여 생기는 협심증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이 관동맥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증이

다(동맥경화증이란 우리 몸의 혈관(특히 동맥)의 벽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져 탄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도 심장이 온몸에 피를 내보내는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이런 상태를 심부전이라고 한다.), 심장이 너무 커졌을 때, 쇼크, 대동맥판막부전증, 관동맥의 경련, 심한 빈혈이 있을 때 산소부족에 예민한 심장에서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고산지대와 같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처했을 때에 건강한 사람도 협심증이 생길 수 있다.

▼ 증상

협심증은 가슴이 아픈 것이 주된 증상이다. 협심증이 있을 때 가슴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거나 쿡쿡 쑤시는 것과 같은 예리한 통증보다는 묵직한 느낌으로 나타난다. 협심증의 통증에 대한 표현은 쥐어짜는 듯, 빠개지는 듯, 조여드는 듯, 무거운 것으로 눌리는 듯, 터지는 듯, 답답함, 달아오르는 느낌 등으로 사람마다 다양한데 공통적인 것은

매우 아프다는 것이다.

증상이 몇 초 동안만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1분에서 15분 정도 지속된다. 통증이 어깨나 팔, 목, 오목 가슴, 등으로 뻗치는 일도 있고, 목이 눌리는 듯한 증상이나 치통을 느끼는 수도 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기운이 빠지면서 진땀이 나고 호흡 곤란, 메스꺼움, 가슴이 뛰는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이런 통증은 대부분 심장이 일을 많이 해서 혈액이 많이 필요할 때 나타난다. 빨리 걷거나 뛰거나 계단이나 언덕을 올라갈 때, 무거운 것을 들 때, 또는 성교할 때와 같은 육체적 활동을 할 때와 화가 나거나 실망하거나 흥분하거나 놀랐을 때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리고 찬바람을 쐬거나 음식을 많이 먹은 후에 협심증이 나타나는 수가 많다.

◎ 다음 여러 가지 증상 중 어떤 것이든 일어날 수 있음

- 가슴에 가벼운 통증이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눌리는 듯한 느낌이 남
-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 소화불량 시와 유사한 가슴의 통증이 자주 발생
- 목구멍에서 질식할 것 같은 느낌
- 가슴의 통증이 턱, 치아, 귓볼까지 퍼져 나타남
- 팔, 어깨, 팔꿈치, 손 등이 무겁고 감각이 무디어지며 통증(타진통)이 있음. 대개 왼쪽에서 많이 나타남
- 어깨뼈 사이에 통증이 있음

▼ 진단

전형적인 협심증은 증상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가슴에 통증을 일으키는 다른 병과 구별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려면 심전도, 부하심전도, 심장초음파 검사, 방사성동위원소 촬영, 관동맥조영술 등의 검사를 한다.

▼ 치료

※ 약물요법

초산염 :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이 널리 사용되는데, 약효가 장시간 지속하는 것은 이소소비드 디니트레이트(isosorbide dinitrate)가 있다.

베타 교감신경 수용체 차단제 : 베타 차단제는 혈압과 심박동수를 저하하므로 치료에 도움이 되나 천식, 심부전, 전도장애가 있는 환자는 주의해야 한다.

칼슘 경로 차단제 : 칼슘의 유입을 차단하여 관동맥 혈관저항을 감소시켜 관동맥의 경련에 의한 이형 협심증에 특히 유효하다. 약물요법에 효과가 없거나, 예후가 나쁠 때에는 경피적 관동맥 성형술이나 관동맥 우회수술을 시행한다.

※ 식이요법

위험인자에 따라서 다르나 저염식, 표준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열량섭취 제한, 콜레스테롤 및 포화지방산 등의 섭취를 제한해야 하며 당뇨병이 병발되었을 경우에는 당분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



<출처> : HealthKorea^{net} 건강샘